

“초대 통합시장 내가 책임자”... 후보군 표심잡기 주력

더불어민주당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방식을 확정하면서 선거전의 막이 오른 가운데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군들이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섰다. 후보군들은 각자가 구상하고 있는 통합특별시의 미래를 설명하는가 하면 민생 현장을 방문해 지역민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군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민형배·이계호·정준호·주철현 국회의원,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 부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후보 8명을 비롯해 10여명 인원이 거론된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6일 담양군 담빛농업관 대강당에서 ‘광주·전남 통합담양군 상생토크’에 참석, 광주·전남 통합 이후 담양 발전 전략과 지역 변화 방향을 군민들과 공유했다.

강 시장은 전남 시·군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함께 20조원 규모

의 정부 재원 지원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또 △광주-대구 달빛철도 제3순환도로(담양 대덕~화순) 확충을 통한 광역교통망 구축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 확산 △담양호·추월산 등 생태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벨트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담양-광주-장성-화순 등을 하나의 ‘광주 경제권’으로 묶어 모빌리티, 인공지능(AI), 쇼핑·의료·교육 등 고급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 거점 도시로 발전시키는 광역발전 비전도 설명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같은 날 광주 북구를 찾아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통합특별시 추진 상황과 북구 미래 발전 방향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통합 추진 경과와 전남광주특별시의 미래상, 특별법 주요 특례, 북구 비전 등을 시민들에게 PT로 직접 설명하며 통합특별시의 구체적 비전을 제시했다.

AI 집적단지과 반도체 첨단 패키징 클러스터 조성 등 북구 주요 현안과 연계한

강기정, 담양서 상생토크...김영록, 광주서 타운홀미팅
신정훈, 1호 공약 ‘반값 전기’ 공급 등 4대 전략 발표
민형배, 동부권 청년과 소통...이병훈, 사무소 개소식
후보들, 권역별 발전방안 발굴·민생 목소리 청취 분주

발전 전략도 시민들과 논의했다.

질의 응답을 통해 국가 컴퓨팅센터 발전 전략, AI·문화 분야 공공기관 우선 유치,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 향후 통합특별시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을 약속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전남 동부권으로 발걸음을 옮겨 지역 청년들과 청년정책 발굴에 나섰다.

민 의원은 지난 7일 광양시청소년문화센터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청년정책 헤커투’를 개최, 광양, 여수, 순천 청년 150여 명과 정책의제를 발굴하며 민생 현상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신 의원은 현재를 에너지 공급 구조가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진단, 에너지 산업 전략을 통해 전남·광주

가 에너지 전환 시대의 새로운 산업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만들 것임을 강조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

이 부위원장은 “통합시장은 중앙정부와 협력해 필요한 제도와 재정을 확보하고 전남과 광주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선거가 되도록 준비된 비전과 행정 경험을 지역민

에게 알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계호 국회의원은 최근 지역구인 영광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민심을 살폈다.

또 독립운동가 비하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역사 왜곡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국경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표 발의하며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정준호 국회의원은 광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과 인근에 위치한 광주-강진 고속국도 건설 현장을 찾아 직접 점검하며 전남·광주 통합 교통망 구축 계획을 내놨다.

해당 계획은 시·군별 분절된 교통행정을 하나로 묶고 고속도로 개통에 맞춰 강진·해남·장흥을 잇는 통합 교통망 확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관광·물류를 아우르는 ‘단일 경제권’을 완성, 단순 이동편의를 넘어 경제 통합을 견인할 핵심 마중물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오는 2028년 개최 예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와 함께 G20정상회의의 동시 개최를 구상했다.

COP33(11~12월 약 2주)과 G20정상회의(11월 약 1주)의 개최 시기가 인접한 점을 활용, 주요 국가 정상들이 한 번의 방문 일정으로 두 행사를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상 방한 원상 전략’을 제시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텃밭’ 찾은 與 “전남광주 통합은 균형발전 특실...파격 지원”

민주당 지도부 영광서 행정통합법 성과 부각
정청래 대표, 영광터미널시장서 민심 접촉도

더불어민주당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지난 6일 영광군 영광농협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특별법 통과로 만들어질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지방 주도 성장을 선도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민주주의 발전에 호남이 기여한 바가 큰데 호남 발전에는 국가가 무엇을 기여했느냐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며 “통합이 확정됨으로써 호남 발전의 또 하나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쁨이 두 배다. 호남의 기쁨이 민주당의 기쁨”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이 먼저 주장하고 행정 절차도 밟았던 총남·대전 통합은 (이들이) 반대하고 있고, 대구·경북은 내부 자중지란으로 오라기하려는 바람에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이들 두 지역의 통합이 무산된다면 200%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남·광주 통합법이 이결된 영광스러운 순간에 영광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니 영광스럽고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주·전남은 국가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대도약의 심장으로서 거듭날 것”이라며 “통합특별시의 산업 육성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6월 3일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하면 이재명 정부는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을 즉시 가동할 것”이라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인 여러분은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 성장을 앞당길 행정통합, 균형 발전, 균형 성장의 특실에 탑승하셨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어 이날 영광군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진행된 ‘에너지기초소득 도시비전포럼’에 참석해 “‘민주주의 발전에 호남이 기여한 바가 큰데 국가는 호남 발전에 무엇을 기여했는가’라는 질문에 ‘이제 답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전남 영광농협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다. 정 대표는 행사에서 자신을 ‘명예 영광민’으로 소개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국정 철학으로 호남 발전 특위를 통한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감사 보은에 대통령께

서 적극 협조해 주셨고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큰절 하는 심정으로 호남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인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비전포럼에서 앞서 지도부와 함께 영광터미널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

들을 만나기도 했다. 그는 시장 내에서 상인에게 사인을 해주거나 사진을 촬영한 뒤 일부 매장에 들려 흥어 등을 직접 구매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영광·정규발 기자 ykjpg98@gwangnam.co.kr

작년 국회의원 1인당 ‘평균 2억’
중앙선관위, 후원 모금내역 공개

지난해 국회의원 1인당 약 2억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정가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지난해 중앙당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 모금내역을 집계한 결과, 303개의 국회의원 후원회에서 모두 608억 3200여만원이 모금됐다.

의원 1인당 평균 모금액은 2억76만여 원이다. 이는 2024년 평균(1억9500여만원)보다 500여만원 증가한 수치다.

37개 중앙당(중앙당장당준비위) 후원회는 모두 81억 7800여만원을 모금했다. 당별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3억 47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보당 9억 7100여만원, 정의당 9억 9000여만원, 개혁신당 8억 3600여만원, 국민의힘 7억 1900여만원 순이었다.

2025년에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국회의원 후원회는 모두 52개다. 국회의원의 연간 모금한도액은 1억 5000만원이다.

지난해 한도액을 채운 국회의원 수는 모두 39명으로 민주당이 31명, 국민의힘 7명, 개혁신당이 1명이었다. 각 정당 및 후원회 등이 제출한 회계보고서는 수입·지출 내역 등의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브리핑

“무안반도 광역생활권 지정해야”

강성희 목포시장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강성희 목포시장 예비후보(사진)가 무안반도(목포·무안·신안)를 광역생활권으로 지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례시로 발전시키는 단계적 통합 방안을 제시했다.

강성희 예비후보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를 묶어 광역생활권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돼 있다”며 “무안반도를 우선 광역생활권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특별법 제11조는 통합특별시장이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정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장의 의견 청취와 위원회 심의를 거처도록 하고 있다.

강 예비후보는 무안반도를 하나의 생활·산업권으로 묶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목포의 항만과 도심 기능, 무안국제공항과 배후 산업단지, 신안해상풍력과 해양자원은 이미 하나의 경제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서부권 중심도시로 성장시킬 것”

류춘오 무안체육회장, 무안군수 출마 선언

류춘오무안체육회장(사진)이 무안의 산업 전환과 지역 활력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6·3지방선거 무안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류춘오 회장은 최근 무안 송달문화예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RE100 산업 전환과 지방소멸위기 등 거대한 변화의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출마배경에 대해 “체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농촌일터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무안의 미래를 깊이 고민하게 됐다”며 “군민의 행복을 중심에 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출마선언과 함께 무안 미래를 위한 7대 핵심 공약을 내놨다. 주요 내용은 농수축산업 고도화, RE100 국가산업단지 유치, 교육 경쟁력 강화와 정주 여건 개선,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청년 정착 지원 등이다.

류춘오 회장은 “군민과 함께 무안을 서부권 중심도시로 성장 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민생 회복·먹거리 창출 최우선”

김동찬 북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더불어민주당 김동찬 북구청장 예비후보(사진)가 최근 선거사무소 개소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개소식은 단순 선거 캠프의 출범을 넘어 북구의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구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치러졌으며, 지역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과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해 김 예비후보의 향후 행보에 힘을 실었다.

김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천명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의 요람인 북구의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북구 미래성장판’을 조성, 혁신 스타트업과 유망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동찬 예비후보는 “시의회와 경제계 최일선에서 축적한 전문과 역량을 오직 북구의 눈부신 도약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남김없이 헌신하겠다”며 “이번 선거사무소 개소가 새로운 ‘북구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강진 예산 1조원 시대 열겠다”

차영수 도의원, 강진군수 출마 선언

차영수 전남도의회 의원(사진)이 7일 강진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강진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산업·농업·관광·정주 기능을 특화 발전시키는 지역 발전 구상을 내놓았다.

차 의원은 이날 오전 강진읍 사의재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강진을 권역별로 특화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권역 간 연계를 통해 ‘머무는 강진, 일하는 강진, 돌아오는 강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강진을 △성전·도암·신전 △삼천·병영·읍천 △침랑·대구·마량 △강진읍·군동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산업·농업·관광·정주 기능을 각각 강화하는 지역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차 의원은 특히 관광 분야와 관련해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먹거리와 볼거리가 결합된 체류형 관광 시대를 열겠다”며 “관광과 지역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